

#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과 의미\*

김 영 애 (성신여대)

## < 목 차 >

- |                         |                    |
|-------------------------|--------------------|
| 1.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제기       | 3. 저작권의 이동과 저자의 지위 |
| 2.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 | 4. 판본 분화의 의미       |

## 국문초록

본고는 이태준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단행본은 『세동무』이다. ‘삼인우달’이라는 표제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표제 ‘세동무’로 출간된 판본은 두 편이다. 하나는 1943년 남창서관본이고 다른 하나는 1946년 범문사본이다. 셋째, 1949년 광문서림본 외에 같은 해 평범사에서 ‘신혼일기’를 표제로 한 판본이 존재한다. 넷째, 평범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판본은 모두 같은 판형이다. 1988년 서음출판사에서 나온 『이태준문학전집』 11권 수록 『행복에의 흰손들』은 『조광』 연재본을 저본으로 했다. 같은 해 깊은샘에서 나온 『이태준전집』 4권 수록 『신혼일기』의 저본은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이다. 태학사 『한국단편소설대계』 25권 수록 『행복에의 흰손들』(1988.11.20)은 『조광』 원문 영인본이며, 같은 곳에서 나온 『한국장편소설대계』 19권 수록 『신혼일기-일명 세동무』(1988.11.20.)는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5B5A02011279)

1949 광문서립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본고는 1943년 남창서관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표제가 ‘삼인우달’이라 본 기존 논의나 연보가 틀렸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에 출간된 단행본들이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와 1949년 광문서립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는 모두 1943년 남창서관본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남창서관본에서 저자 표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단행본의 정체를 해적판으로 규정했다. 1949년 평범사본 『신혼일기』는 같은 해 출간된 광문서립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를 도용한 판본이라 판단했다. 1988년 『행복에의 흰손들』은 네 차례 전집과 영인본에 수록되었다. 이중 서음출판사본은 최초 연재본을 일부 고쳐 수록했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깝고, 깊은샘본은 최종 개작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된 텍스트에 가깝다. 또 태학사에서 나온 두 영인본의 경우 동일 작품이 다른 표제로 영인된 것은, 『조광』 연재본과 1949년 광문서립본이 각각 다른 작품으로 오인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저작권 문제와 판본 분화 사이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조광』 연재 이후 출간된 단행본 가운데 1943년 남창서관본은 유일하게 저자의 이름 대신 출판사 사주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기했다. 최초 단행본인 1943년 남창서관본이 출간된 이래 그 후속 간행물들은 모두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남창서관으로 양도된 판권은 이후 범문사, 광문서립 등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자 간에 이루어진 저작권 양도를 통해 『행복에의 흰손들』은 수차례 새로운 판본으로 재탄생했다.

주제어: 이태준, 행복에의 흰손들, 세동무, 신혼일기, 원본, 이본, 판본, 해적판, 저작권 양도, 남창서관

## 1. 기존 논의 검토와 문제제기

이태준의 『幸福에의 흰손들』은 1942년 1월부터 1943년 1월까지 『조광』에 12회 연재 완료된 장편소설이다. 본고는 이 작품이 연재 종료 후 여러 편의 이본<sup>1)</sup>으로 출간된 정황에 주목하여 『幸福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소설사에서 하나의 원본이 이처럼 여러 편의 이본으로 출현한 사례는 매우 드물고, 더욱이 이들 대부분이 원본의 표제를 바꾸어 출간된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기존 이태준 소설 연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개작 및 판본 분화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여 이태준 소설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한다. 특히 1942년부터 1949년 사이 7년간 저작권<sup>2)</sup>의 소재(所在)가 다섯 차례 이상 바뀐 현상에 대한 고찰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 없으나, 이는 이태준 소설 연구에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저작권의 소재가 바뀐 것이 표면적으로 문제 될 일은 아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원본 수정과 변형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幸福에의 흰손들』은 개작 및 저작권 문제를 동시에 고찰할 수 있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幸福에의 흰손들』의 개작 문제를 다룬 논의로는 민충환, 이병렬, 안남연, 정현기, 이명희, 송명희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sup>3)</sup> 이들 중 본격적인 작품론은 이병렬, 안남연, 송명희의 논의이고, 나머지는 참고문헌, 작품연보, 목록 등을 참고할 만하다.<sup>4)</sup> 민충환은 이태준의 단편소설 중 개작된 38편의 원문

1) 기존 이태준 연구에 언급된 이본은 『삼인우담』, 『세동무』(남창서관 1943), 『행복에의 흰손들』(박문서관 1945), 『세동무』(범문사 1946), 『신혼일기』(광문서관 1949), 『신혼일기』(평범사 1949) 등 여섯 편이다.

2) 여기서의 저작권은 기존에 사용되던 ‘판권’과 ‘저작자의 권리’를 동시에 이르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3) 대부분의 논의는 본격적인 장편소설론인 경우가 드물고, 참고문헌이나 작품 연보, 목록을 참고할 만하다. 이밖에, 판본 문제와는 무관하나 임종국의 『친일문학론』(평화출판사, 1963, 476면)에는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이 친일문학으로 평가되어 있다.

4) 『행복에의 흰손들』의 텍스트 분석을 시도한 논의로는 한지현의 「여성의 시각에

과 개작본을 대조하여 제시했으나 그 대상이 단편에 한정되어 있다.<sup>5)</sup> 이병렬은 이태준이 장단편 11편의 제목을 바꾼, 꾸준한 개작의 작가임을 언급하며, “『행복에의 흰손들』(『조광』 1942.1-1943.1)→『三人遇達』(『삼인우달』, 1943)→『세동무』(『세동무』, 1946)→『신혼일기』(『신혼일기』, 1949)”로 『행복에의 흰손들』의 개제과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sup>6)</sup> 안남연은 그의 저서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에서 『행복에의 흰손들』이 “남창서관(1943)에서 『삼인우달』로 개제하여 출간한 바 있고, 범문사(1946)에서 『세동무』로 개제하여 출간했다.”고 언급하고, ‘참고문헌’에서 ‘이태준 중장편소설집’으로 “1943년 『삼인우달』(남창서관, 1943)”과 “『세동무』(범문사, 1946)”를 제시하였다.<sup>7)</sup> 이 논의에는 『신혼일기』의 존재가 누락되었다. 정현기의 연보 중에는 “1946년 범문사 『세동무』, 1949년 평범사 『신혼일기』”라는 새로운 서지사항이 제시되어 있다.<sup>8)</sup> 정현기의 연보는 그 출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949년 광문서림본 이외에 또 다른 판본이 존재하는 셈이다.

이명희는 연보에서 “『삼인우달』, 남창서관, 1943.11(『행복에의 흰손들』 개제), “『세동무』, 범문사, 1946.5(『행복에의 흰손들』 개제), “『신혼일기』, 광

---

서 본 이태준의 장편소설 연구-『딸삼형제』와 『행복에의 흰손들』을 중심으로」(『인문과학』80,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송명희의 「이태준 소설의 여성 이미지 연구-『신혼일기』를 중심으로」(『한국문학이론과 비평』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한민주의 「일제 말기 소설 연구-파시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5), 김다혜의 「여학생 수다와 전쟁: 잡담의 기능-『행복에의 흰손들』을 중심으로」(『상허학보』41, 2014), 배개화의 「이태준의 여성교양소설과 가부장제 비판」(『국어국문학』166, 2014. 3) 등이 있다. 이들 중 한지현(405쪽)과 한민주(145면), 김다혜(10쪽)는 『조광』 연재 종료 시기를 ‘1943년 6월’로 잘못 표기했다. 배개화(288쪽)는 판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나, 이 작품이 여러 차례 개제된 이유가 “여성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 짐작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이태준이 이 작품의 제목을 수차례 수정했는지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 5) 민충환, 『이태준연구』, 깊은샘, 1988.
- 6) 이병렬, 「이태준 소설의 텍스트 문제-작품의 개작 양상과 관련하여」, 『이태준소설 연구』, 평민사, 1990, 52면.
- 7) 안남연,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대영현대문화사, 1993, 172, 293면.
- 8) 정현기, 『이태준』, 건국대출판부, 1994, 105면.

문서림, 1949.2(『행복에의 흰손들』 개제)라 명시했으나, 『세동무』의 출판사명을 ‘범문사’로 잘못 표기했다.<sup>9)</sup> 이기인 편 『이태준』 연보에는 “『삼인우달』, 남창서관, 1943.11. 장편. 『행복에의 흰손들』 개제”, “『세동무』, 범문사, 1946. 5. 장편. 『행복에의 흰손들』 개제”, “『신혼일기』, 광문서림, 1949.2. 장편. 『행복에의 흰손들』 개제”로 제시되어 있다.<sup>10)</sup> 비교적 최근 연구서인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sup>11)</sup>에 수록된 작품 목록은 기존에 이병렬이 제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송명희는 “『신혼일기』는 처음 『조광』지에 발표(1942. 1-1943.1)할 당시에는 『행복에의 흰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후 단행본으로 출판되면서 제목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가령 『행복에의 흰손들』(박문서관, 1945)에서 『세동무』(범우사, 1946)로, 다시 『신혼일기(新婚日記)』(광문서림, 1949)로 바뀌었다.”<sup>12)</sup>고 정리했다. 송명희의 논문에는 『세동무』의 출판사가 ‘범우사’로 잘못 기재되었다.

그 외 최근 『행복에의 흰손들』의 서지사항 및 이본의 존재를 확인한 연구서로 오영식과 송하춘의 저술이 있다. 이들은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혀 놓았다. 가령 오영식의 『해방기 간행도서 총 목록』에는 해방기에 출간된 이본 중 『세동무』(“전편, 범문사, 1946.5.30. 202쪽 25원”)와 『신혼일기』(“일명 세동무, 광문서림 1949.2.15. 384쪽 550원”)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신혼일기』의 표지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송하춘의 사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부분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1942년 『조광』 연재 후 단행본 출간되었다. 연재 당시에는 ‘長篇連載 幸福에의 흰손들’이라는 표제로 소개되었다. 『행복에의 흰손들』(박문서관, 1945), 『세 동무』(범문사, 1946), 『新婚日記-일명 세 동무』(광문서림, 1949) 세 판본 모두 이명동작 관계의 단행본이다.”, (“『삼인우달』은 『조광』에 연재된 장편연재 『행복에의 흰손들』과 동일작일 가능성이 있으나 남창서관본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이

9) 이명희, 『상허 이태준 문학세계』, 국학자료원, 1994, 356-357면.

10) 이기인 편, 『이태준』, 새미, 1996, 306면.

11)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408-409면.

12) 송명희, 『이태준 소설의 여성 이미지 연구-『신혼일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 이론과 비평』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35면.

다.”<sup>13)</sup>

기존 논의 검토를 통해 민충환, 정현기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1943년 남창서관본 『삼인우달』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판본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시하지 못한 점, 각 판본 간의 차이에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드러냈다. 『조광』 연재본과 단행본들 간 차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동일 텍스트로 간주하거나, 판본 간 차이를 간과하고 표제의 변화에만 주목했다는 점 등이 기존 연구가 노정한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sup>14)</sup> 이에 따라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바는 대략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조광』 연재 이후 첫 단행본 출간 시점과 출판사 및 표제 확인이다. 기존 연구를 검토한 결과 많은 논자들이 1943년 남창서관본을 『행복에의 흰손들』의 첫 단행본으로 언급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첫 번째 논점은 1943년 남창서관본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있다. 두 번째는 1946년 범문사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것이 남창서관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1949년 광문서림본, 평범사본의 실체 및 관계 규명이다. 네 번째는 전집 및 영인본 수록 텍스트의 양상과 이들에 내재된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 규명을 바탕으로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의 상태에 있음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야기된 오류와 혼란을 바로잡고자 한다.<sup>15)</sup>

13) 송하춘 편,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1917-1950』, 고려대 출판부, 2013, 231, 544-545면.

14) 한민주의 논문에는 『행복에의 흰손들』이 매우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서지사향을 확인하는 데에는 매우 소홀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한다. 그 예로 그가 참고문헌에서 제시한 이 작품의 서지사향은 “『조광』 1942.1~1943.6”(145면), “『이태준문학전집』 11, 단음출판사, 1988”(192면)으로, 이는 “『조광』 1942.1~1943.1”, “『이태준문학전집』 11, 서음출판사, 1988”로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조광』 연재본 『행복에의 흰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1988년 서음출판사본 『이태준문학전집』 11로 재출간되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에 둘 간의 차이는 물론, 그 과정에서의 변모 양상 또한 제시하지 않았다.

본고는 1942년 『조광』 연재본을 시작으로 1943년 남창서관본,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 평범사본 『신혼일기』에 이르는, 원본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과정을 탐색해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기에 걸친 이태준 소설의 출판 환경과 거기에 작동한 여러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이본들 중 해적판이 존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각 판본들의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1942년 연재된 이래로 1949년까지 『행복에의 흰손들』은 최소 네 차례 이상 다른 판본으로 출간되었다. 판본이 다르다는 것은 각 단행본의 형태와 내용, 출판 사항 등에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행복에의 흰손들』의 원본과 이본들 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 그리고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기에 걸쳐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이 다양한 형태로 분화된 배경을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다. 이는 이태준 소설의 계보를 완성하기 위해, 더불어 식민지 말기부터 해방기 사이 우리 문단의 굴절과 변모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 2.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

### 2.1. 1943년 남창서관본의 실체

1942년 1월부터 이태준이 『조광』에 연재한 작품의 원제는 ‘幸福에의 흰손들’이다. 『행복에의 흰손들』의 첫 단행본이 무엇인지에 관한 기존 논의를 종합하면, 이것은 1943년 남창서관에서 ‘세동무’ 혹은 ‘三人友達’이라는 표제로 출간되었다. 여기서,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판본의 표제가 ‘세동무’인

---

15) 본고의 한계는 명확하다. 1945년 박문서관에서 출간되었다고 언급된 『행복에의 흰손들』과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 후편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출간되었다면, 이에 대한 확인은 추후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이다.

지 ‘三人友達’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많은 논의에서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단행본을 『三人友達』이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의 첫 번째 논점은 1943년 남창서관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첫 번째 논점에 관해 필자가 확인한 결과, 『행복에의 흰손들』의 첫 단행본은 소화 18년 10월 10일 남창서관(南昌書館)에서 ‘세동무’라는 표제로 출간되었다. 이 판본은 전체 384면, 정가 2원 50전의 단권으로, 단편 「결혼」, 「코스모스이야기」와 합철되어 있다.<sup>16)</sup> 표지에 ‘세동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전체 384면 중 『세동무』는 339면이다. 이는 표제와 1장 소제목이 수정된(‘흰손의 세사람’→‘세동무’) 첫 판본이다. 이 단행본의 ‘목차’는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후 다시 논의하겠지만 이 목차는 실제 본문과 다르다. 실제 본문은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창서관본 ‘목차’ 페이지에는 이 중 세장(4, 8, 9장) 소제목이 누락되었다. 따라서 표지 다음 페이지에 소개된 ‘목차’만으로 본문 구성을 파악할 경우 텍스트의 실제 내용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조광』 연재본에 나온 소제목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누락한 것이 출판업자의 고의에 의한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 판본에서 주목을 요하는 또 다른 지점은 원작자 이태준의 이름이 누락된 부분이다. 이 단행본의 간기에는 출판 일자 및 저작권 관련 기록이 있으며(‘複製不許’), 저작 겸 발행자의 이름이 ‘남창희(南昌熙)’로 표기되어 있다. 원작자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다. 비교를 위해 1943년 박문서관에서 출간된 『돌다리』의 경우를 들어보자. 『돌다리』의 간기에는 이태준의 필명 중 하나인 ‘賞必樓’가 인지로 찍혀 있고, 저작자 이름에도 ‘이태준’이라는 표기가 등장한다. 『돌다리』와 비교할 때 같은 해 출간된 남창서관본 『세동무』는 원작자를 알 수 있는 어떤 표기도 없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같은 곳에서 출간된 『왕자호동』(남창서관, 1945)의 경우를 살펴보자. 『왕자호동』 상권에는 원작자인 이태준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다. 본문 첫 장에 ‘이태준 저’라는 표기가 있고, 간기에도 ‘저자 이태준, 발행자 남창희’로 표기되어 있다. 『왕자호동』의 경우

16) 단편 「결혼」의 원제는 「결혼의 악마성」(<해성> 1931.4-6)이며, 「코스모스 이야기」는 1932년 10월 <이화>에 발표되었다.



같은 출판사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되었으나, 저자의 존재를 명시하고 저자와 발행자를 구분해 놓았다. 그러나 1943년 출간된 『세동무』에는 저자 표기가 없다. 이로 인해 이 판본의 정체가 정본이 아닌 해적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표지, 본문, 간기 모두를 포함해 이 판본에서 원작자의 이름은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당시 이태준이 남한에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점, 표제와 1장 소제목이 바뀌는 점 등을 토대로 이 판본의 출간에 이태준이 개입했을 가능성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태준이 『행복에의 흰손들』의 저작권을 남창서관에 양도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해당 출판사가 자의로 표제를 수정하고 본문 일부를 누락하여 출간했을 수도 있다. 이렇듯 1943년 남창서관본 『세동무』의 정체에 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당시 관행 상 판권이나 저작권을 무시하고 출간된 단행본이 드물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저자의 이름을 어느 곳에도 밝히지 않은 것은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사실과 상황들은 이 판본이 해적판임을 가리킨다. 이는 저작권 시비를 피하기 위해 출판업자가 저자명 삭제, 표제 수정, 목차 누락 등의 부정확한 방식으로 출간한 판본이라 할 수 있다.<sup>17)</sup>

현재 1943년 남창서관에서 『三人友達』이라는 표제로 출간된 작품은 그 존재 및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 표제 ‘三人友達’은 ‘세 동무’의 일본어 표기이다. 즉 ‘三人友達’이라는 표제의 작품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세 동무’를 일본어로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1943년

---

17) 남창서관본은 해방기 이기영의 장편소설 출간 사례와 매우 유사한 경우이다. 이기영의 장편소설 중 『신개지』(동아일보, 1938)와 『생활의 윤리』(성문당서점, 1942)는 각각 『순정』(세창서관, 1941), 『정열기』(성문당서점, 1948)로 개제되었다. 또한 『신개지』가 『순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저자명도 ‘이기영’에서 ‘운정’으로 바뀌었다. 1948년 성문당서점에서 출간된 『정열기』의 경우 저작 겸 발행자가 ‘이중수’로 표기되었다. 두 작품 모두 본문 일부를 누락하여 수록했고 표제를 수정했으며 저자명을 삭제했다는 점에서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과 유사한 출판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이기영 소설의 개제에 관해서는 김영애, 『이기영 소설의 개제 양상과 그 의미』(『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를 참고했다.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행복에의 흰손들』의 첫 단행본은 『세동무』 하나뿐이다. 『세동무』가 일본어판으로 출간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현재 일본어 판본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같은 해 남창서관에서 각각 ‘세동무’, ‘삼인우달’로 표제를 달리하여 출간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따라서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행복에의 흰손들』의 첫 단행본은 『세동무』이다.<sup>18)</sup>

## 2.2. 1946년 범문사본의 위치

본고의 두 번째 논점은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에 관한 것이다.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는 전후 편으로 분권되어 출간되었다. 이 가운데 전편은 현재 확인이 가능하나, 후편은 확인할 수 없다.<sup>19)</sup> 전편은 1946년 5월 30일 발행되었고, 발행자는 김영옥(金永昱), 인쇄자는 김시달(金是達)이다. 표제가 ‘세동무’이며, 저자명 ‘이태준’이 표기되었다. 이태준이 1946년 8월 10일경 월북한 사실<sup>20)</sup>을 토대로 할 때 이 판본은 그가 월북하기 전 마지막으로 출간한 것이다. 물론 월북 이후의 행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당시 남북간 교류가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판본 이후에 출간된 판본들에 대해 이태준이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월북 이후 이태준이 남쪽 출판계와 직접적인 소통을 했을 가능성 역시 그리 많지 않다. 이는 월북 이후 그의 행보를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1946년에 출간된 범문사본 『세동무』는 전편(前篇)이 7장 202면으로 출간된 판본만 확인할 수 있고 후편은 확인이 불가능하다. 표면적으로만 따졌을 때 범문사본과 남창서관본은 전혀 다른 판본처럼 보인다. 범문사본은 전후

18) ‘三人友達’이라는 표제가 왜 등장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일문 사용이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된 당시 상황을 토대로 짐작컨대 ‘세동무’라는 국문 표기 대신 일문 표기를 썼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19) 현재 범문사본 『세동무』의 후편을 언급한 논의는 없다.

20) 유입하, 『월북 이후의 이태준 문학의 장소 감각』, 『돈암어문학』28, 돈암어문학회, 2015, 328면.

편 분권된 판본이고, 남창서관본은 단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 판본의 표지도 다르다. 남창서관본에 따로 마련된 목차는 범문사본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제외하면 두 판본은 본문의 구성과 판형이 동일하다. 남창서관본 목차에서 누락된 4장 소제목 ‘소춘이가 서로 본 선’이 범문사본 전편에서 복원되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토대로 짐작컨대, 1946년 범문사본 후편에는 1943년 남창서관본 목차에서 누락된 8장과 9장 소제목도 모두 복원되었을 것이다. 다음 항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겠지만, 범문사본은 남창서관본을 계승했고 광문서림본은 범문사본을 계승했다. 이는 본문 판형의 동일성을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범문사본 후편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광문서림본의 본문을 토대로 추측할 때 후편이 『세동무』의 나머지 8, 9, 10, 11, 12장과 두 단편 「결혼」, 「코스모스이야기」로 구성된 판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남창서관본과 범문사본의 표제와 본문 구성 및 판형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바는, 두 판본 사이에 계통적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범문사본은 이전 판본인 남창서관본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약간의 변형을 가해 출간함으로써 두 판본 간의 연속성과 차이를 보이고자 했다.

또한 범문사본과 남창서관본 간 계통적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일부 연구자들이 언급한 1945년 박문서관본 『행복에의 흰손들』이 실제 출간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만약 박문서관본이 실제로 출간되었다면 1946년 범문사본은 1943년 남창서관본이 아니라 1945년 박문서관본이 저본이 되었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1943년 남창서관본과 1946년 범문사본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과 연속성을 토대로 추측할 때 1945년 박문서관본은 출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남창서관본은 저자명과 목차 일부를 누락한 판본이기에, 만약 박문서관에서 이를 보완한 판본을 출간했다면, 1946년 범문사본은 남창서관본이 아니라 박문서관본을 토대로 새로운 단행본을 출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서술은 추측에 불과하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인 근거는 별로 없다. 그러나 현재 확인되지 않는 박문서관본의 실제(實在)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 역시 없다. 박문서관본이 남창서관본의 오

류를 보완하여 더 완성도 있는 판본으로 출간되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박문서관본의 표제가 ‘행복에의 흰손들’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1943년 남창서관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남창서관본과 범문사본의 표제가 ‘세동무’로 동일한 것 등을 토대로 볼 때 범문사본의 저본은 박문서관본이 아니라 남창서관본이며, 둘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박문서관본은 실제 출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 2.3. 1949년의 두 판본-광문서림본과 평범사본

본고의 세 번째 논점은 1949년에 출간된 두 판본에 관한 것이다. 먼저 광문서림본 『新婚日記—名 세동무』는 전체 384면으로 된 단권이며, 난외서명이 ‘세동무’로 되어 있다. 1943년 남창서관본과 마찬가지로 단편 『결혼』, 『코스모스이야기』와 합철되어 있으며, 전체 384면 중 『신혼일기』는 339면이다. 1949년 2월 15일 고려인쇄소에서 인쇄되었고, 장정은 김호성(金胡星)이 맡았다. 이 판본 표지에 저자명 ‘이태준’이 표기되어 있다. 1949년 광문서림본에서 표제가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로 수정된 것은 이태준의 월북 시기를 고려할 때 저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sup>21)</sup> 광문서림본은 표제가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로 수정된 판본이며 남창서관본과 동일한 판형의 단행본이다. 표지와 표제의 차이가 두 판본 간 다른 점이다. 두 권으로 분책된 판본인 범문사본과 다르게 광문서림본은 남창서관본처럼 단권 체제이다. 두 판본은 모두 전체 12장 384면으로, 두 단편과 함께 실려 있다. 광문서림본

21) 해방 직후 이태준의 행보는 거의 정치와 조직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는 1945년 문화건설중앙협의회, 문학가동맹, 남조선민전 등의 조직에 참여했고 문학가동맹 부위원장, <현대일보> 주간 등을 역임했고, 1946년 민주주의 민족전선 문화부장, 남조선 조소문화협회 이사를 맡았다. 1946년 8월 경 월북하여 8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방소문화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등지를 여행했다. 1949년에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부위원장, 국가학위수여위원회 문학분과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추측해 볼 때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는 저자가 직접 관여해 출간한 개작본이라 보기 어렵다.

표지에는 ‘長篇小説 新婚日記 李泰俊’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속표지에 ‘新婚日記(一名 세동무) 李泰俊 著 서울 廣文書林 刊’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의 체제가 1949년 광문서림본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 전편이 7장 ‘신혼일기’ 202면으로 끝나고,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 역시 7장 ‘신혼일기’ 202면으로 편집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광문서림본은 범문사본 전후편을 그대로 합본한 것이라 판단된다. 비록 범문사본 후편을 확인할 수 없으나, 광문서림본이 범문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 확인된 만큼 두 판본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범문사본은 남창서관본을 계승했다. 따라서 1943년 남창서관본, 1946년 범문사본, 1949년 광문서림본 사이에 계통적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광문서림본이 범문사본을 저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현재 확인되지 않은 범문사본 후편 역시 실제 출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측컨대 범문사본 후편은 남창서관본, 광문서림본의 8장~12장과 두 단편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남창서관본과 광문서림본의 체제는 표제, 표지, 간기, 저자명 표기 정도를 제외하고 동일하다. 표제의 경우에도, 남창서관본이 ‘세동무’이고, 광문서림본이 ‘신혼일기-일명 세동무’이니 둘 사이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두 판본의 전체 면수 또한 384면으로 동일하다. 전체 분량 중 장편소설 『세동무』(남창서관)와 『신혼일기』(광문서림)의 면수는 모두 339면이다. 두 단편이 함께 묶인 것도 같다. 그런데 남창서관본에는 ‘목차’가 따로 마련된 반면 범문사본과 광문서림본에는 목차를 명시한 페이지가 따로 없다. 남창서관본 ‘목차’는 전체 9장 체제로, 광문서림본과 비교할 때 4, 8, 9장 소재목이 누락되었다. 범문사본과 광문서림본이 남창서관본을 계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본의 목차 페이지를 삭제한 데는 이유가 있다. 남창서관본 목차가 전체 12장 중 3장을 누락하고 9장만 수록되었기 때문이다. 두 판본에서는 남창서관본 목차의 오류를 인식하고 독자들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목차 페이지를 삭제했다. 결국 광문서림본은 남창서관본의 오류를 보완한 판본이며, 그런 의미에서 범문사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표 1]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간 표제 및 목차 비교

	조광 연재본	남창서관본	범문사본	광문서림본	평범사본
제목	幸福에의 흰손들	세동무	세동무	新婚日記	新婚日記
1장	흰손의 세사람	세동무	세동무	세동무	세동무
2장	화옥의 저이집 이야기	화옥의 저이집 이야기	화옥의 저이집 이야기	화옥의 저이집 이야기	화옥의 저희집 이야기
3장	순남의 그동안	순남의그동안	순남의 그동안	순남의 그동안	순남의 그동안
4장	누락	누락	소춘이가 서로 본 선	소춘이가 서로 본 선	소춘이가 서로 본 선
5장	종잡을 수 없는 심리들	종잡을수없는 심리들	종잡을수없는 심리들	종잡을 수 없는 심리들	종잡을 수 없는 심리들
6장	남은 알고 당자는 모르는 것	남은알고당자는모르는 것	남은알고 당자는모르는것	남은알고 당자는모르는것	남은 알고 당자는 모르는 것
7장	신혼일기	신혼일기	신혼일기	신혼일기	신혼일기
8장	흰손이 가진 義憤	누락	미확인	흰손이 가진 의분(義憤)	흰손이 가진 의분
9장	달려지는 세상	누락	미확인	달려지는세상	달라지는 세상
10장	화옥의 식집사 리	화옥의식집사 리	미확인	화옥의 식집사 리	화옥의 식집살이
11장	어떤 教授의 化粧說	어떤教授의化粧說	미확인	어떤 教授의 化粧說	어떤 교수의 화장설
12장	불잡은 幸福들	불잡은幸福들	미확인	불잡은 幸福들	불잡은 행복들

[표 1]은 『행복에의 흰손들』 판본 간 소제목 차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조광』 연재본의 1장 소제목은 원래 ‘흰손의 세사람’이었다. 1장 소제목이 ‘세동무’로 바뀐 것은 남창서관본부터이다. 이후에 출간된 판본들은 모두

남창서관본에서 바뀐 소제목을 사용했다. 또 『조광』 연재본에는 본문 4장의 소제목이 누락되었다. 본문이 누락된 것이 아니라 4장 소제목만 누락된 것인데, 이는 잡지 조판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 『조광』 연재본에서 누락된 4장 소제목은 이후 범문사본, 광문서림본 등에서 ‘소춘이가 서로 본 선’으로 복원된다. 남창서관본 목차에도 누락된 4장 제목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남창서관본이 전체 9장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목차’를 기준으로 광문서림본과 비교할 때 남창서관본은 총 세 장이 누락된 셈이다. 그러나 실제 본문은 이와 다르다. 남창서관본 ‘목차’에 누락된 4, 8, 9장 소제목은 모두 본문 속에 등장한다. 따라서 남창서관본과 광문서림본의 본문은 동일하다. 광문서림본은 범문사본을 저본으로 한 것이기에 범문사본의 본문 역시 남창서관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차이는 전술한 바대로 범문사본이 두 권으로 분책되어 있다는 점뿐이다.

평범사본은 현재 소장처를 알 수 없어 실체 확인이 어렵다. 다만 한 웹사이트<sup>22)</sup>에서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판본의 표제는 ‘新婚日記’이며 부제는 없다. 목차는 12장으로 광문서림본과 동일하다. 다만 띄어쓰기나 현대어 표기 등이 다르고 부제가 누락된 것이 두 판본 간 차이점이다. 평범사본 목차는 모두 현대어 표기로 바뀌었고 한자 표기가 한글 표기로 대체되었다.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로는 이 판본이 1949년에 발행된 172면의 단권이라 표기되어 있다. 이 정보에 의하면 1949년 평범사본은 같은 해 출간된 광문서림본과 다른 판본이다. 광문서림본은 전체 384면으로, 장편 『신혼일기』와 단편 두 편이 합철된 판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 사후 웹사이트 업로드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된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정확한 발행일자를 확인할 수 없고 텍스트의 실체를 알 수 없기에 이 판본이 같은 해 2월 15일에 출간된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두 판본의 표제가 모두 ‘신혼일기’인 점과, 두 판본이 같은 해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은 분명 어떤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으리라 추측된다.<sup>23)</sup>

22) www.kdata.co.kr/db/pdfarticle/title-1849.

두 판본은 적어도 순차적으로 발행되었을 것이기에 둘 중 하나는 해적판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광문서립본 『신혼일기』가 정본으로 여겨져 왔기에 평범사본이 광문서립본의 해적판일 확률이 높다. 만약 광문서립본에 앞서 평범사본이 출간되었다면 전자가 해적판이겠지만, 광문서립본은 이미 1943년에 출간된 남창서관본을 계승한 판본이기 때문에 해적판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1949년 평범사본 『신혼일기』는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광문서립본 중 본문 일부인 『신혼일기』만을 수록한 해적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문서립본의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라는 표제 중 일부인 ‘신혼일기’만을 취했다는 점에서도 여타 해적판 출간 사례와 유사한 경향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 판본이 남창서관본과 다른 지점은 저자의 이름을 표기한 부분이다. 1949년 평범사본 『신혼일기』는 저자명을 밝히고 표제를 일부 수정했으며 본문 일부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해적판들과 닮았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 2.4. 전집 및 영인본 텍스트

『행복에의 흰손들』이라는 텍스트의 판본에 관한 문제의식의 부재는 지금까지도 많은 혼란을 양산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988년에 출간된 두 편의 전집과 두 편의 영인본이다. 본고의 네 번째 논의는 이들에 관한 것이다. 먼저 1988년에 출간된 두 전집 『이태준문학전집11-행복에의 흰손들』(서음출판사, 1988.8.10)과 『이태준전집4-구원의 여상, 신혼일기』(깊은샘, 1988.8.

23) 광문서립은 1947년 9월에 설립된 출판사로, 이광수의 『문장독본』, 홍효민의 『인조반정』 같은 문예물을 주로 출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범사는 1948년 9월에 설립되어 김남천, 김기림, 방인근의 단행본을 출간했다. 특히 방인근의 『새출발』이 1948년 12월 18일에, 김기림의 『바다와 육체』가 12월 25일에 출간되었고, 김남천의 『사랑의 수족관』이 1949년 2월 22일에 출간된 사실을 고려할 때, 평범사본 『신혼일기』 역시 1949년 초반에 출간되었으리라 짐작된다.

24) 이와 유사한 사례로 1949년, 1959년 채만식의 『태평천하』가 세 편의 해적판으로 출간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영애의 『해적판의 계보와 『태평천하』의 계통』(『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를 참고할 수 있다.



21)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서음출판사 『이태준문학전집11』에 수록된 판본은 『조광』 연재본 『행복에의 흰손들』을 저본으로 삼았다. 소제목 한자 표기가 한글 표기로 대체되었다는 점이 『조광』 연재본과 다르고, 깊은샘본과 달리 현대어 표기로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서음출판사본은 『조광』 연재본을 수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말미에 “『조광』 1942년 1월~43년 6월”로 연재 서지 사항을 잘못 표기하였다. 이에 비해 깊은샘 『이태준전집4』에 수록된 판본은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를 저본으로 삼았다. 깊은샘본에는 “1942년 1월부터 1943년 1월까지 『조광』지에 12회 연재된 장편”, “1945년 박문서관에서 『행복에의 흰손들』, 1946년 범문사에서 『세동무』, 1949년 광문서림에서 『신혼일기』로 각각 제목을 바꾸어 발행되었다. 이 책에서 텍스트로 삼은 것은 1949년 2월 광문서림에서 간행된 『신혼일기』이다.”라는 부기가 있다. 이 전집 수록 텍스트는 광문서림본을 저본으로 하여 현대어 표기, 한글 표기로 바꾸었다. 또한 이 전집에는 광문서림본에서 함철되었던 두 단편이 빠지고 『신혼일기』만 수록되었다.

표제만 놓고 볼 때 서음출판사본 『행복에의 흰손들』과 깊은샘본 『신혼일기』가 동일 작품임을 알아차릴 일반 독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출간된 두 전집의 수록 텍스트가 다르다는 점은, 당시 정본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극히 다양했거나 혹은 치밀하지 못했음을 드러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서음출판사본과 깊은샘본의 차이는 결국 1942년 『조광』 연재본과 1949년 광문서림본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서음출판사본은 최초 연재본을 일부 고쳐 수록했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깝고, 깊은샘본은 최종 개작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된 텍스트에 가깝다. 이들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정본(定本)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결론을 내린 결과이다.

또한 1988년 태학사에서 출간된 두 권의 영인본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조광』 연재본을 그대로 영인한 것이 1988년 태학사 편 『한국단편소설대계』 25권(1988.11.20)에 수록된 『행복에의 흰손들』이다. 이 영인본에 수록된 작품은 ‘단편’으로 분류되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태학사 편 『한국

장편소설대계』 19권(1988.11.20)에는 『신혼일기-일명 세동무』가 ‘장편’으로 분류되어 실렸다. 이 영인본 수록 텍스트는 1949년 광문서림본을 저본으로 했으나, 그중 단편 「결혼」까지만 합철되었고, 「코스모스이야기」는 빠졌으며, 간기도 누락되었다. 이 영인본에는 광문서림본 전체 384면 중 352면만 수록되었다. 따라서 『한국장편소설대계』 19권에 수록된 판본은 광문서림본의 일부이다. 이 영인본이 단편 「결혼」까지 수록한 것은 『신혼일기』 본문이 종결되는 부분을 착각한 결과라 짐작된다. 이렇듯 같은 시기, 같은 곳에서 동일 작품이 다른 표제로 영인된 것은, 『조광』 연재본과 1949년 광문서림본이 각각 다른 작품으로 오인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앞서 살핀 두 전집과 유사하게 동일한 시기에 출간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으며, 영인 과정에서 판본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 이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집본이나 영인본 텍스트를 통해 이태준의 작품 세계에 손쉽게 접근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후 텍스트 및 서지사항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과 논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

제 목	출판사	출판년도	기 타	비고
幸福에의 흰손들	조광	1942.1-19 43.1	12회 연재	저자 표기
세동무	남창 서관	1943.10.10	단권 384면. 「결혼」, 「코스모스 이야기」 합철	저자 미표기
행복에의 흰손들	박문 서관	1945	단권	미확인
세동무	범문사	1946.5.30	전후편 분권 전편 202면	저자 표기 후편 미확인
新婚日記— 一名 세동무	광문 서림	1949.2.15	단권 384면. 「결혼」, 「코스모스 이야기」 합철	저자 표기

新婚日記	평범사	1949	단권 172면	저자 표기 원본 미확인
행복에의 흰손들	서음 출판사	1988.8.10	전집. 『조광』 연재본	저자 표기
新婚日記	깊은샘	1988.8.21	전집. 광문서림본	저자 표기
幸福에의 흰손들	태학사	1988.11.20	영인본. 『조광』 연재본	저자 표기
新婚日記	태학사	1988.8.21	영인본. 광문서림본 일부 수록	저자 표기

### 3. 저작권의 이동과 저자의 지위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복에의 흰손들』은 1942년 『조광』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개제, 개작되어 다양한 이본으로 출간되었다. 『행복에의 흰손들』의 저작권 소재를 살피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이 작품의 많은 이본들이 실제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출간된 판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듯 해방 전후 우리 문단은 매우 혼란했고, 특히 출판시장의 혼란은 더욱 심각했다. 이 과정에서 기성작가들의 작품이 무단으로 출간되는 이른바 해적판이 출현하기도 했다. 또한 비록 해적판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저자의 의도에 따라 출간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개제판, 개작본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sup>25)</sup> 이는 저작권에 관한 명료한 인식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롯한 현상들이라 할 수 있다.

25) 대표적으로 이기영, 김기진, 채만식 등이 해방 이전에 발표했던 장편소설이 해방기에 개제판 혹은 해적판의 형태로 다수 출간된 바 있다. 또한 이병렬의 연구(『이태준 소설의 텍스트 문제』,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1994, 286면)에도 이러한 지적이 나온다. 그는 『행복에의 흰손들』 개제가 작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출판관계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이태준의 월북 시기를 들었다. 이러한 지적은 월북 이후에 출간된 개작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1942년 『조광』에 연재된 『행복에의 흰손들』은 1949년까지 수차례 다른 판본으로 출간되었다. 이태준의 많은 작품 가운데 『행복에의 흰손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거나 덜 연구된 소설이다. 비교적 최근이야 이 작품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이태준 연구에서 큰 비중을 지니지 않는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식민지 말기를 거쳐 해방기에 이르기까지 네 차례 이상 다른 판본으로 출간되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만하다. 세 여성을 중심인물로 삼아 전개되는, 다분히 통속적인 색채의 ‘여학생소설’로 평가되는 이 작품이, 해방기를 전후로 빈번하게 출간된 배경은 무엇일까? 또한 이 과정에서 저자명 누락, 본문 누락, 표제 수정 등의 현상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현상과 저작권 소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sup>26)</sup>

엄밀하게 말해 ‘판권’은 저작물의 출판 및 복제, 판매에 관한 권리로 제한된다. 식민지시기에 통용된 판권 개념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저작권은 판권 및 저작자의 권리까지 아우르는 개념이지만, 판권은 저작권 중 일부만을 행사할 권리로 제한된다. 그런데 이태준을 비롯한 많은 작가들의 경우 출판에 관한 권리인 ‘판권’이 저작자의 권리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자 혹은 저자 개념의 범주가 모호했던 것이다. 방효순에 따르면, 이 시기 “판권상의 저작자는 저작권법과 동일한 해당 저작물의 원저자(편집자, 번역자 등 포함), 원저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상속받은 자, 원저자·저작권 양도자로부터 출판 승낙을 받은 출판업자 중 하나”였기 때

26)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출판 상황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기적 사실이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추측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43년 10월 남창서관본 『세동무』를 출간할 무렵 이태준은 강원도 철원으로 낙향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이곳에서 지냈다. 이 시기를 전후로 이태준은 장편 『왕자호동』을 매일신보에 연재했고(1942.12.22-1943.6.16), 단편 「석교」(<국민문학> 1943.1), 「뒤틀방마님」(1943.12)과 일본어소설 「제1호 선박의 삽화」(<국민총력> 1944.9) 등을 발표했다. 1930년대 후반과 비교하면 거의 절필 수준으로 창작활동을 유지했을 따름이다. 1943년 남창서관본 『세동무』에 이태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당시 이태준의 행보와도 관련이 깊어 보인다.

문이다.<sup>27)</sup> 즉 이 시기 저작권법은 유명무실한 것이었고 저자의 지위 또한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자의 개념이 불확실한 출판물의 대표적인 예가 딱지본 소설이다. 박문서관, 영창서관, 남창서관 등 식민지시기에 설립된 다수의 출판사들은 서적의 판매와 출판을 겸하면서 동시에 사주의 지위를 ‘저작자’로 올려 실제 저자의 위치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 이들 출판사에서 나온 딱지본 소설들은 대부분 저작자의 이름 대신 발행자 혹은 출판사 사주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다.

딱지본 소설의 경우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특정 상황에서 저자 대신 출판업자를 내세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소설의 경우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의든 아니든 원저자의 이름을 누락하고 대신 출판업자를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며 비윤리적인 것이다. 문제는 식민지시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이러한 출판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이 수차례 저작권 소재를 옮겨 출간된 배경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최초 연재 이후 출간된 단행본 가운데 1943년 남창서관본은 유일하게 저자의 이름 대신 출판사 사주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기했다. 나머지 판본들에는 저자 이태준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태준이 언제 이 작품의 판권을 출판업자에게 양도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최초 단행본인 1943년 남창서관본이 출간된 이래 그 후속 간행물들은 모두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이태준이 1943년 남창서관에 이 작품의 판권을 양도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판본을 해적판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저자의 이름을 밝히는 행위는 저작권 보호의 최소한이다. 저자 표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판본은 정상적인 출판물로 인정될 수 없다.

이 가설을 확장하면, 남창서관으로 양도되었던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권은 이후 범문사, 광문서림 등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이태준이 직접 개입했을 확률은 낮다. 오영식의 지적처럼, 해방 이후 이태준의 작품들

27) 방효순, 「일제시대 저작권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21, 2001, 220면.

다수가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혔다. 국문 서적이 귀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이태준이라는 작가의 명성 때문이기도 했다.<sup>28)</sup>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판권 없이 출간되었다.<sup>29)</sup> 저자의 이름을 누락한 사례와 마찬가지로, 판권 없이 출간된 단행본이 저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태준의 월북은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그의 저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행위나 다름없다. 해방기를 전후로 이태준이라는 ‘저자’는 사라지고, 출판업자들이 책을 팔아 남긴 수익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갔다.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자 간에 이루어진 저작권 양도를 통해 『행복에의 흰손들』은 수차례 새로운 판본으로 재탄생했다. 남창서관본을 제외한 나머지 판본들이 저자 이태준의 이름을 명기했다고는 하나, 이것만으로 저자의 권리를 보장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행복에의 흰손들』은 저자가 아닌 출판업자에 의해 여러 차례 다른 판본으로 출간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자의 지위나 권리는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결국 『행복에의 흰손들』이 여러 판본으로 분화되어 출간되는 과정에서 주체적인 위치를 점한 것은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자였다. 해방 전후 이태준을 비롯한 월북 작가의, 저자로서의 지위는 약화 혹은 소멸된 반면 출판업자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식민지시기에 발표된 작품들이 꾸준히 출판, 판매되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28) 이태준의 작품들은 해방 이후에도 꾸준히 출간, 재출간되었다. 해방 이후 출간된 이태준의 단행본으로는 『왕자호동』(남창서관, 1945.9), 『세동무』(범문사, 1946.5), 『황진이』(동광당서점, 1946.8), 『사상의 월야』(을유문화사, 1946.11), 『돌다리』(박문출판사, 1946), 『해방전후』(조선문학사, 1947.1), 『복덕방』(을유문화사, 1947.5), 『농토』(삼성문화사, 1948.8), 『구원의 여상』(영창서관, 1948.9), 『신혼일기』(광문서림, 1949.2), 『제2의 운명』(한성도서, 1948), 『이태준단편집』(박문출판사, 1946), 『소련기행』(조선문학가동맹, 1947.5), 『상허문학독본』(백양당, 1946:1949), 『문장강화』(박문출판사, 1947:1949), 『서간문강화』(박문출판사, 1948.1) 등이 있다.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2009, 377-378면.

29) 오영식은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의 서문에서, 이태준의 저작들이 해방기 베스트셀러에 속한다고 밝히면서, “당시 상허의 일부 저작들은 판권 자체가 없이 출판된 경우가 많아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통계 자체가 잡히지 않는다.”라고 서술하였다. 오영식, 앞의 책, 29면.

#### 4. 판본 분화의 의미

본고는 이태준의 장편소설 『행복에의 흰손들』의 판본 분화 양상을 면밀히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43년 남창서관에서 출간된 단행본은 『세동무』이다. ‘三人友達’이라는 표제의 작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표제 ‘세동무’로 출간된 판본은 두 편이다. 하나는 1943년 남창서관본이고 다른 하나는 1946년 범문사본이다. 셋째, 1949년 광문서림본 외에 같은 해 평범사에서 ‘신혼일기’를 표제로 한 판본이 존재한다. 넷째, 평범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세 판본은 모두 같은 판형이다. 다른 점은 표제, 목차, 간기 등이다. 세 판본의 본문 면수는 339면이다. 이들 중 범문사본만 전후편 분권이고 나머지는 단권이다. 1988년 서울출판사에서 나온 『이태준문학전집』 11권 수록 『행복에의 흰손들』은 『조광』 연재본을 저본으로 했다. 같은 해 깊은샘에서 나온 『이태준전집』 4권 수록 『신혼일기』의 저본은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이다. 대학사 간행 『한국단편소설대계』 25권 수록 『幸福에의 흰손들』(1988.11.20)은 『조광』 원문 영인본이며, 같은 곳에서 나온 『한국장편소설대계』 19권 수록 『新婚日記—一名 세동무』(1988.11.20.)는 1949 광문서림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본고는 1943년 남창서관본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표제가 ‘삼인우달’이라 본 기존 논의나 연보가 틀렸음을 밝혔다. 또한 이후에 출간된 단행본들이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음을 밝혔다. 1946년 범문사본 『세동무』와 1949년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는 모두 1943년 남창서관본을 토대로 만들어 졌다. 그리고 남창서관본에서 저자 표기가 등장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 단행본의 정체를 해적판으로 규정했다. 이와 더불어 판권 양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러한 해적판이 출간된 배경을 고찰했다. 1949년 평범사본 『신혼일기』는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했으나, 여러 가지 정황 상 같은 해 출간된 광문서림본 『신혼일기-일명 세동무』를 도용한 판본이라 판단된다. 광문서림본이 남창서관본, 범문사본을 계승한 판본인 반면, 평범사본은 판형, 쪽수 등이 이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1988년 『행복에의 흰손들』은 네 차례 전집과 영인본에 수록되었다. 이중 전집 수록 텍스트(서음출판사본과 깊은샘본)의 차이는 1942년 『조광』 연재본과 1949년 광문서림본 사이의 거리이다. 서음출판사본은 최초 연재본을 일부 고쳐 수록했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깝고, 깊은샘본은 최종 개작본을 수록했다는 점에서 가장 완성된 텍스트에 가깝다. 이들의 차이는 결국 ‘무엇을 정본(定本)으로 볼 것인가’라는 논점에 대해 각각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결론을 내린 결과이다. 또 영인본의 경우 동일 작품이 다른 표제로 영인된 것은, 『조광』 연재본과 1949년 광문서림본이 각각 다른 작품으로 오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두 전집과 마찬가지로, 판본의 중요성을 간과한 결과와 같은 오류를 범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집본이나 영인본 텍스트를 통해 이태준의 작품세계에 손쉽게 접근한다는 점을 고려해 차후 텍스트 및 서지사항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본고는 『행복에의 흰손들』의 단행본 출간 과정을 고찰하고 각 판본들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여 판본 분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저작권 문제와 판본 분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고찰하였다. 이태준의 『행복에의 흰손들』이 수차례 다른 판본으로 출간된 배경에는 저작권 문제가 걸려 있다. 『조광』 연재 이후 출간된 단행본 가운데 1943년 남창서관본은 유일하게 저자의 이름 대신 출판사 사주의 이름을 저작자로 표기했다. 최초 단행본인 1943년 남창서관본이 출간된 이래 그 후속 간행물들은 모두 이 판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이태준이 1943년 남창서관에 이 작품의 판권을 양도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창서관으로 양도된 판권은 이후 범문사, 광문서림 등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 저자가 개입할 여지는 많지 않다. 저자가 아니라 출판업자 간에 이루어진 저작권 양도를 통해 『행복에의 흰손들』은 수차례 새로운 판본으로 재탄생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이태준, <행복에의 흰손들>, 『조광』 1942.1-1943.1.  
이태준, 『세동무』, 남창서관, 1943.  
이태준, 『세동무』, 범문사, 1946.  
이태준, 『신혼일기-일명 세동무』, 1949.  
이태준, 『신혼일기』, 평범사, 1949(www.kdata.co.kr/db/pdfarticle/title-1849).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11-행복에의 흰손들』, 서음출판사, 1988.  
이태준, 『이태준전집4-신혼일기, 구원의 여상, 깊은샘』, 1988.  
이태준, 『한국단편소설대계25-행복에의 흰손들』, 태학사, 1988.  
이태준, 『한국장편소설대계19-신혼일기』, 태학사, 1988.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진호, 『현대소설사와 이태준의 위상-이태준 연구와 향후의 과제』,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김다혜, 『여학생 수다와 전쟁: 잡담의 기능-『행복에의 흰손들』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1, 2014.  
김영애, 『이기영 소설의 개재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김영애, 『해적관의 계보와 『태평천하』의 계통』, 『현대소설연구』 5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김은정,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욕망의 서사적 구성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1.  
민충환, 『이태준 소설의 선본 문제』,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9.  
방효순, 『일제시대 저작권제도의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21, 2001.  
배개화, 『이태준의 여성교양소설과 가부장제 비판』, 『국어국문학』 166, 2014. 3.

- 상허학회 편, 『이태준과 현대소설사』, 깊은샘, 2004.
- 송명희. 「이태준 소설의 여성 이미지 연구-『신혼일기』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 2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송하춘 편.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 1917-1950』,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3.
- 안남연, 『이태준 장편소설 연구』, 대영현대문화사, 1993.
- 오영식.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소명출판, 2008.
- 유임하. 「월북 이후의 이태준 문학의 장소 감각」, 『돈암어문학』 28, 돈암어문학회, 2015.
- 이기인 편, 『이태준』, 새미, 1996.
- 이병렬, 「이태준 소설의 텍스트 문제」, 『국어국문학』 111, 국어국문학회, 1994.
- 임종국,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1963.
- 정현기, 『이태준』,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 하동호. 「박문서관의 출판서지고」, 『출판학연구』, 한국출판학회, 1971.
- 한민주. 「일제 말기 소설 연구-과시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학위 논문, 2005.
- 한지현. 「여성의 시각에서 본 이태준의 장편소설 연구-『딸삼형제』와 『행복에의 흰손들』을 중심으로」, 『인문과학』 80,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9.

【Abstracts】

Aspects and meanings on the different version of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by Lee Tae-jun

Kim Young-ae

This study has a purpose, which is to analyze aspects on the different versions of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by Lee Tae-jun.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had been published serially in the magazine Jogwang from 1942-1943. Following its initial publication, this work was retitled as “The three friends” and published in 1943 by the publisher of Namchang. This edition was the first separate volume of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Until now, many researchers have pointed out on the first separate volume of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as “*The Saminwoodal*(三人友達)”. But there is no work with that title. There is no name of writer Lee Tae-jun in the edition of Namchang, so this may possibly be a pirate edition. In 1946, “The three friends” was republished at the publisher of Bummun with two volumes. This version inherited the edition of Namchang, but these two editions were comprised of different details. In 1949,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was republished again by two different publishers. One is titled “*The diary of new marriage*” and was published by a publisher of Gwangmun. This edition appeared identical to the edition of Bummun, but it was published as a separate volume. As the edition of Bummun was originated from Namchang, the editions from Gwangmun and Namchang appear the same. Actually, the editions of Namchang and Gwangmun have identical forms. The other is

titled by “*The diary of new marriage*” and published by the publisher of Pyeugbum. This edition is different from the Gwangmun in detail, but the title is the same. Possibly the edition of Pyeugbum is a pirate edition of the Gwangmun version. Last, there are some errors in the two complete works of Lee Tae-jun. Also two photographic editions mistook the edition of Jogwang for the Gwangmun and misconceived two editions as the same. They did not know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se editions. They must be corrected and supplemented certainly for further research on Lee Tae-jun and his literature to be more accurate in its accounts.

Key words: Lee Tae-jun, *The white hands for happiness*, *The three friends*, *The diary of new marriage*, the original, a different version, edition, pirate edition, transfer of copyright, The publisher of Namchang.

이 논문은 2016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